

주말기획 | 위기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유독 연예인에게는 그 가혹한 평가의 잣대가 부여된다. 의지와 상관없이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스타에 대한 관심이 늘고 SNS 같은 매체가 급증하는 시대에 연예인들이 각종 구설과 루머,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갖은 위기에 빠진 채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어김없이 올해도 새해부터 연예계가 시골벽적이다. 사실 연예계가 하루라도 잠잠한 적은 없었다. 언제나 위기와 극복의 연속이던 연예계와 연예인. 이제 단순 연예매시지먼트보다 연예인 '위기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

① 사건사고로 ② 거짓말 변명에 ③ 구설 휘말리면...

논란 찾아들이 않는 '연예인 3대 위기'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김준호 코코 폐업 예상 못한 '럭비공 민심'에 이미지 치명상

클라라·신정환 도덕성 결여된 해명 들통
한효주·김태희 등 '루머와의 전쟁' 곤혹



김준호

한효주

이제 대중에게도 내성이 생겼다. 연예인이 처한 웬만한 위기 상황은 눈길조차 끌지 않는다. 그럼에도 쉽게 잊히지 않고, 논란이 찾아들이 않는 '연예인 3대 위기'가 있다. 사정당국이 개입된 각종 '사건·사고', 거짓말로 상징되는 '도덕성'의 문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구설'이다.

● '사건·사고'...이병헌부터 김준호까지

연예인이려면 누구도 엮이고 싶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스타들은 온갖 사건·사고에 연루된다.

지난해 9월 50억원 협박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은 근대 연예계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결정판을 보여줬다. 그 액수로 놀랍지만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난무했다. 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들의 항소로 인해 향후 재판은 더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정에서 이뤄지는 시시비비와 별개로 이병헌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위기는 증폭됐다. 개그맨 김준호는 소속사 코코엔터테인먼트 폐업과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의도적인 폐업 결정'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공금 횡령과 출연료 미지급 등 '돈' 문제로 얼룩진 사건이란 점에서 대중은 더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챙기는 리더로 비친 김준호는 이제는 그 '숨은 의도'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스타가 연루된 사건·사고가 어떻게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대중이 '사건'을 온전히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건·사고가 불고 온 스타의 위기 상황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 '도덕성'...클라라부터 신정환까지

'잘못은 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누구나 들어왔던 당부다. 하물며 유명 스타가 되고도 도덕성에 관한 이 간단한 명제를 실천하지 '못해' 중대한 위기를 맞은 이들이 있다.

연기자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 폴라리엔

터테인먼트와 고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속사 이모 회장을 고소하며 그 이유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클라라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논란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라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으로 옮겨갔다.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개된 클라라와 이 회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때문이다. 상당 부분 클라라가 '원인'을 제공한 듯 비춰진 탓에 그가 주장한 '수치심'의 진정성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도덕성으로 치명타를 입은 신정환은 6년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2010년 필리핀 원정도박으로 당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행기열로 입원했다'고 둘러댄 말이 거짓으로 들뜬 뒤 설 자리를 잃었다. 누구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 '구설'...한효주부터 나훈아까지

구설은 '고의적인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작동한다. 스타의 의지와 무관하게 휘말릴 때가 많지만 역시 의지대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블랙홀과 같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다.

연예계에서는 잘못이 없는데도 구설이나 루머에 휘말리는 연예인이 비일비재하다. 김태희 같은 스타들이 종종 '루머와의 전쟁'을 외치며 누리꾼들을 고소하는 것도 구설이나 루머에 대처할 방법이 법에 호소하는 것 외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구설에 휘말린 스타는 한효주다.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인 동생이 연루된 사건의 후폭풍을 그대로 맞고 있다. 악의적인 공격은 심지어 출연 영화까지 그 대상에 올려놓았다.

루머와 한판 승부를 벌인 가수 나훈아도 빼놓기 어렵다. 신체 부위가 절단됐다는 해괴한 루머에 시달리던 그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보여주겠다'며 단상에 올라 바지 지퍼를 내리려 했던 모습은 루머로 얼룩진 스타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명징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갑작스런 상황이 몰고 온 위기의 순간. 스타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진은 지난해 11월24일 이병헌이 '50억 협박'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사과하는 모습. 스포츠동아DB

■ 이미지컨설팅 전문가 '스타들의 위기 관리법' 조언

'진정성 있는 반성' 먼저 해라

이미 얹질려진 물을 쓸어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뭇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물을 얹질렀다"는 비난을 듣기 싫어 거짓말을 한다면, 훗날 더 큰 파장을 불러 모을 것이고, 얹질려진 물을 바로 닦는다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

계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스타들 역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고 위기에 닥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모면하기 위해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한다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미지컨설팅 전문가들이 '스타들의 위기 관리법'에 대해 조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사회적·상식적·일반적 정서에 어긋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가장 먼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처음부터 공개하라!"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사건)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졌다 때 모든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거나 '절대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겠다'라며 숨긴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과거 '한 유부남 배우의 불륜 사건'을 떠올리면서, "큰 사건일수록 빨리 때를 맞고 가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한 배우가 불륜 사실을 소속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밝혀진 일이었다. 소속사 측은 자신의 배우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지만, 사건의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혼탕 싸움으로 변했고 결국 해당 배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정연아 이미지컨설팅 협회장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편이 낫다. 사건에 함께 연루된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해 내용이 하나씩 알려지면 그만큼 피해는 더 커지고, 상황만 악화한다"면서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 모을 수 있으니 먼저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라!"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면서도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는 스타들을 종종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진주 퍼스널이미지연구소 소장은 "스타는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잣대가 된다.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도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구질구질한 자신의 말만 늘어놓아서도 안된다.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눈에 띄지 마라!"

일단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면 대중의 정서는 겹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다. 일부 스타들이 일정 기간 지속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연아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중의 정서다. 사랑이 컸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면서 "지속 기간에 사회봉사 등을 하는 것도 좋지"라며 "자신을 낮추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대중의 눈에 띄지 않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그것 참 신통하다!

12步

아하!
이제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제품이구나!

참 좋은데... 일단 써보신분들이 추천하는 제품

불이고 12걸음만 걸으면 가뿐해진다는 12보!

걸리고 쭈시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신통통통~ 강력한 음이온 지속 방출 칩 부착 패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50분 한정
파격구매 찬스!!!

구입문의: 1661-1224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인근제: 0351-0651-2245-73 제이메스넷
온라인제: 2013서울관광2014제 제이메스넷 E-mail: kbs2014@naver.com

正品 가요 100년사 불후의 명곡
노래방 녹음라디오

도전 1100곡/ 명곡 503곡/ 가사도 나오는 최신 휴대용 노래방

▶오리지널 가수와 명곡의와의 조화/ ▶도전1100곡 2015년 출시!
▶녹음라디오 대형화면에 가사제공/ ▶1회충전: 20시간사용
(교성능 녹음기결음-라디오 생방송 즉시 녹음기능)
▶도전1100곡-스마트폰에서 재생기능! 선물용으로 최고!

기존 시중에서 판매하는 7080는 불법음원으로 원곡가수가 아닌 뽕
픽 메들리 가수 노래에 똑같은 노래를 여러 아마추어가수가 부르는
방식의 불법음원이며 자칫 고장이라도 나면 A/S 또한 불가능하며
"유명인사가 도산하여 생산이 어려워는 상황이라"이에 많은 소비자
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현재도 보고 있다. 2015년 새로이 출시된 도전
1100곡과 이미 출시된 503곡 명곡가요 노래방 녹음라디오는 오리
지날가수의 멋진곡 노래와 또다른 조화로운 관화를 얻고 있으며
정통음원을 사용하여 최상의 음악을 들을수 있다.

구성: 고급형 1100곡
일반형 503곡

가짜제품을 사들은 사람은 인생에 밝게
본다(정용은 기자)

정통503곡원더 1100곡1399원(배송비 7000원)
이미지, 남다른
박현빈, 장윤정까지
1100곡 수록!

로고스 오디오생 녹음 라디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 정통 삼국 신구약 66권 1.189권
● 빠른 녹음 신구약 66권 1.189권
● 정통 66권/ 녹음신구약 1.189권
● 하가 메모리/ 녹음기능/ 사이즈: 101x57x21mm
● 색상: 블랙/스레밍 음향카드 사용가능
● 최대 20시간 사용가능

성원전통 BOOM-R7

www.sunsea.kr

구입문의: 1644-2464 인근제: 0351-0651-2245-73 제이메스넷
온라인제: 2013서울관광2014제 제이메스넷 E-mail: kbs2014@naver.com

2015년형
007스파이 적외선 시계 캠코더

16GB 대용량 800만화소, 방송, HD영상 30프레임,
동영상 촬영, 동시녹음, 사진촬영 48,000장
불빛이 전혀 없어도 적외선으로 영상을 찍는다!

일찍 보기에는 영광없는
보통 손목시계이지만 녹음
은 기본, 동영상 촬영 및 야
간촬영이 가능하며 야간촬
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
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
여 불빛이 없는 어둠속에
서도 눈치채지 못하게 동
영상 촬영을 할수 있으며,
사진촬영은 메모리 16기가
로 48,000장까지 저장
가능하다. USB로 연결시
이동디스크 인식!

업무상 비밀녹음, 녹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역을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거 촬영이 가능하
며 쓰레기 무단 투척, 불법선거운동, 환경오염, 계약위반증
거자료 불법행위 증거자료등 수집이 가능하다. 적외선 시계
캠코더는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손목에 차고다니다가 필요
할때 언제든지 남이 모르게 녹음할 촬영이 가능하므로 분쟁이
많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인기를 끌고 있다!

월 29,000원이면 구입 가능! ※A/S발생시 신제품으로 교환
가죽밴드, USB 케이블, 충전기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

문의: 1899-3177 / 02-474-8822

발기부전끝 발기콜

1. 당뇨, 고혈압, 성기확대자, 발기
약 먹어도 안되고, 완전 발기 불능
자도, 발기콜 사용 시 발기부전 없
는 남자 보다 더 단단하게 발기되
는 전자식.

2. 자연발기보다 혈액이 더 많이 올
라가 많이 사용 시 더 길어지는 특
허품. 특허명칭=발기장치

3. 본인이 사정을 조절할 수 있어 발
기 오래 지속되는 완전 신제품.

4. 통증 없고 표시 안나 자연산 같다.

5. 발기 안 되고 빨리 끝나면 환불

발기부전끝+15센치길게+팬티 = 20만원
발기부전끝+15센치길게 = 18만원

010-9607-9970 · 010-2762-2540

농협 170202-56-055221 김영순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1길8-1, 통신강동구 2013-0738호